

2025년 삼위일체주일 예배 대표기도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19)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며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힘과 위로를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한 분이시면서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거룩한 삼위일체주일에 저희가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죄인 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저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좇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잊은 채 스스로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며 교만하게 행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망각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외면한 채 이기심과 미움으로 가득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탄식을 외면하고, 세상의 쾌락과 염려에 빠져 성령을 근심하게 했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다운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건하게 붙들어주시는 담임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로
튼튼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러지는 이 6월 셋째주일, 삼위일체주일 예배를 통해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개인의 이익이나 정당의 유불리를 따르기보다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심해지는 이념과 세대의 갈등 속에서 교회가 먼저 용서와 화해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찢기고 상한 이 땅을 치유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위기 속에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우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교회가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삼위일체주일을 맞아 우리 교회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연합과 사랑을
본받아, 모든 성도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온전히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사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투병의 과정 속에서 더욱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낙심한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아들들, 학업과 취업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 먼 타지에서 생활하는 성도들
모두를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선한 손길이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아,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흠어져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구원받는 영혼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선교적인 사명을 잊지 않고,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며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불드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13)

오늘도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